

'시크릿가든' 라임씨가 주원 목숨 살렸다?

등록 2010.12.27 17:34:00 | 수정 2017.01.11 13:03:06



【서울=뉴스시스】김정환 기자 = SBS TV 주말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길라임(하지원)과 김주원(현빈)의 만남이 우연만은 아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26일 주원의 몸으로 들어간 라임은 주원 집 욕실에서 면도를 하던 중 사물함에 있던 약을 발견한다. 약을 보면서 지난 번 김주원과 몸이 뒤바뀌었을 때 이종사촌형 오스카(윤상현)가 했던 말들을 떠올리게 된다.

당시 오스카는 평소와 달리 살갑게 구는 주원(사실은 라임)을 반기며 “너 진짜 완전 이상하다. 오랜만에 동생 모습이었어. 그 사고 이후로는…”라고 했다. 과거를 모르고 있는 몸만 주원인 라임이 “사고?”라며 의아해하자 오스카는 당황해하며 “말이 헛나왔다. 사고가 아니고 사립고, 사립고”라고 얼버무렸다. 또 오스카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모르는 주원(라임)을 “언제부터 그래? 자주 그래? 비밀번호 말고 또 기억이 안 나가거나, 뭔가 기억이 나가거나?”하며 걱정한다.

같은 시간, 라임에게 빙의한 주원은 액션스쿨 라임의 라커 문 안쪽에 붙어 있는 라임 부녀의 사진을 바라 보며 “이런 말씀드리면 속보이지만 어쩐지 꼭 뵈는 분 같구. 막 친근하구… 그렇습니다”라고 혼잣말을 한다.

이제까지의 주원은 폐소공포증이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아예 타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래서인지 차도 3대나 갖고 있지만 그 중 가장 좋아하는 차가 지붕을 열어 젖힐 수 있는 BMW Z4 로드스터다. 비행기도 간신히 탄다.

라임의 아버지(정인기)는 소방관이었는데 사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순직한 것으로 설정돼 있다.

이러한 내용들로 볼 때 주원이 수년 전 끔찍한 사고를 겪고, 라임의 부친이 주원을 구하고 대신 숨졌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주원은 사고 이후 기억상실증에 걸려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폐소공포증도 사고 후유증으로 생긴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시청자들의 의견도 대체로 같다. ‘아마도 라임이 아빠가 돌아가신 사고 현장에 주원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폐소공포도 그렇고… 아마 아빠가 한 번 살려준 운명이니 우리 딸 위해 희생하라고…’, ‘예전에 주원 사고 난 것 같고… 그 현장으로 출동한 119 구조원이 라임이 아빠인듯’, ‘나도 그런 생각했다. 그때 사고로 주원이 폐소공포증 느끼는데… 뒤에 어떤 사건으로 주원이 생각 해낼듯…’, ‘주원이 구해준 분이 라임이 아빠 아닌가요? 그 사고로 아빠 죽은 것?’ 등의 의견을 내고 있다.

한편 이날 방송 말미에 라임(주원)이 부친의 기일을 모르는 것을 의심한 액션스쿨 감독 임종석(이필립)이 던진 함정성 질문에 라임이 걸려들고, 라임(주원) 역시 절친한 친구이자 주치의인 박지현(유서진)을 알아보지 못한 사실을 오스카가 캐물었다. 총 20회 중 6회를 남긴 '시크릿가든'은 더욱 긴박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이날 시청률은 26.5% (TNmS)였다.

ace@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